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2월 27일 ( 제835호 )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사람들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나'만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기주의 없는 이타주의는 없다. 사과 씨를 심으면 이것이 자라기 위해 주변의 영양분을 뿌리를 통해 다 끌어당긴다. 나부터 살겠다는 것이다. 이기주의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무가 되고 거기에 사과를 많이 맺으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다. 즉 내가 있어야 베풀 수 있고, 내가 배워야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남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하셨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고 하신 것이다.

이기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곳은 없다.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어느 기업이든 다 내가 먼저다. 다만 계속 이기주의로 남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끝까지 이기주의로 남아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독식하는 것이 문제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 나가 전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처럼 구는 게 문제다. 그러나 이타주의를 염두에 둔 이기주의는 비판받을 필요가 없다. 이기주의는 이타주의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엄마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식들만 생각하다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다. 엄마 자신을 챙기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자를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한다. 내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있어야 남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맞다. 우리나라가 있어야 세계화도, 세계평화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세상의 중심은 곧 '나'다.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됨을 알고, '나'를 관리하자. 나에게 투자하자.

# 지금은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2016년 새해 들어 북한의 거침없는 막가파식 행보가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월 6일의 수소탄 발사 실험이나 2월 7일의 광명성 4호 발사는 그 어떤 변명을 둘러댄다 해도 핵무장을 향한 지속적 도발이다. 수소탄 발사 실험은 핵탄두의 경량화를 의심케 하고, 광명성 4호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근접했음을 시사하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UN을 통한 대북제재 뿐 아니라 국가별 제재수준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의 전면가동중단을 선언하고 우리 측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막대한 외화자

려는 전략이고, 실질적인 1차 피해자는 결국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 중심부에 단 한발의 핵폭탄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더구나 북한의 핵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하는 데는 10여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단언컨대 지금의 위기는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조성되었던 한반도 위기 상황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에 다시 빨간 넥타이를 착용하시고 단에 오르셨다. 현 시국의 엄중함에 목사님이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신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힘 있는 자와 돈 있는 자가 싸우면 누

성회를 개최하며 잠실, 시청광장, 대구, 올림픽공원으로 이어지는 5차 남북평화 통일 기도성회를 통해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내가 다시 기도의 봉황불을 들며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함입니다. 나는 이미 살만큼 살았고 지금 불려도 언제든지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며 자라온 우리 2세들이 지옥 같은 전쟁의 참화에 빠져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 모두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요, 첨단무기가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다함께 기도하자!

금이 핵무기 개발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한 한미 대북억제력 차원에서 주한 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 및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지만, 이는 핵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무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해도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을 공격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대미협상력을 높이

가 이기겠습니까? 평시에는 돈 있는 자가 유리하겠지만, 전시가 되면 오직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힘이 없으면 당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합니다. 국가의 안위라는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타개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3년 한반도 위기 때에 부친실내체육관에서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

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온대로 남북이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했던 것처럼, 니느웨 멸망의 경고를 듣고 왕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금식하여 재앙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금식하며 이 땅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의 책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 주일은사집회

장소: KBS88체육관

시간: 매주 주일 오후 3시

문의: 02. 533. 9191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삼상7:3~12)



#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다

지난 10일 정부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개성공단 수입금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계속 수소탄 실험과 광명성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우리를 위협하며 도발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극단적 제재조치만은 피했지만, 유엔을 비롯한 우방국가에 대북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마당인지라 먼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조강수를 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안일합니다. 다들 ‘설마 전쟁이 나겠어?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닌데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마’가 뭘니까? 자기가 할 도리나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말인 1945년 8월 6일, 폴 티베츠 대령의 지휘하에 B-29 에노라게이호는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이는 일본이 태평양 미해군의 거점인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미국을 자극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이 원자폭탄투하가 있기 전 미국은 일본에 대해 ‘항복하라’고 사전경고를 했습니다. 한편 일본 측에서는 항복하자는 쪽과 강경대응하자는 쪽으로 양분되어 팽팽히 맞서다가

탐은 애굽 사람과 함께 동일하게 모든 처음 난 것, 곧 장자는 물론이고 생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잃었습니다.

오랜 세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모세를 향하여 원성을 높였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많은 자가 죽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과 모세에게 범죄한 것을 깨달은 백성들은 기도했고,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민21:8)”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즉시 뱀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바라본 자마다

다 치료되고 살았습니다.

다. 그런데 ‘그것을 본다고 불뱀에 물린 것이 치료되겠어? 설마~’ 하고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하여 우환을 없애자는 말입니다. 이이의 십만양 병설이 받아들여졌다면 임진왜란에서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318명의 전투원을 집에서 기르고 연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함께 쫓아가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여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창14:14~20). 다윗도 정예화 된 군사를 길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유엔이 우리를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0분이면 서울은 초토화 된답니다. 맞은 다음에 유엔에 제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적보다 내적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네 당, 내 당 찾을 때입니까? 서로 협력하고 똘똘 뭉쳐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

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21:31).

저는 이런 시점에서 일단 예정되었던 필리핀 집회를 접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선교도 국가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저는 사무엘이 국가적 위기에서 취한 행동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릴레이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강성함과 침략으로 인하여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국가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회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

무엘은 이것만 이 그들이 당면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한 후에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또한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삼상2:6~7). 그런데 사무엘이 무작정 금식기도를 명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삼상7:3).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사무엘이 ‘그만 섬기라’, 곧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용서받아야 합니다.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에스겔서 22

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숭배하고, 음란하며 약자의 것을 착취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현주소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회초리를 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 국가가 없는 백성은 국가가 있는 개만도 못하다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테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고로”(겔22:30)입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인 열 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봅시다. 퇴폐, 불법, 황금만능주의... 정말 돌아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36년간의 일제 강점기, 6·25 전쟁, IMF경제 위기... 이런 역사 속에서도 이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에서 지금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왜 망하지 않고 왔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의인 열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선교대국, 이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온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의 성도들에게 금식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봐도 주변국이 강해서 이스라엘의 외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변국을 회초리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있는 동안 외침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교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평화가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 명의 의인이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객원칼럼::

::겨자씨만한 믿음::

# 나 하나쯤이야

어느 선생님이 회갑을 맞이하게 되자 제자들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약주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정성껏 빚은 소주를 한 병씩 가지고 와서 술독에 함께 모아 잔칫상에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잔칫날이 되자 제자들이 각자 소주를 가져와서 술독에 함께 부었습니다. 연장자인 제자가 술독을 잘 저어서 예쁜 호리병에 술을 담아 먼저 선생님께 올렸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이 준비한 술잔을 기쁜 마음으로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술이 아니고 물이야!” 제자들은 각자 ‘나 하나쯤이야 물을 가져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모두 물만 가져온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무책임한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부족하거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족, 교회, 정부, 타인에게 원망한 경우는 없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나요? 우리가 성숙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모든 원인을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방해만 하는 존재를 매일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그 존재는 얼굴을 천으로 항상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존재가 누군지 알기위해 얼굴에 가리고 있는 천을 확 걷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얼굴은 바로 자신이었다고 합

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았던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각은 자기관리를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유도합니다.

둘째, 배려와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궁무진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푼 작은 사랑도 나비효과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큰 역사를 이룬다고 합니다.

셋째, 타인의 충고에 유념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자아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와 타인이 평가하는 자아가 합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유지하려는 아집과 타인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생각을 함께 접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주위에 지극한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 타인의 감정, 나의 감정

우리나라에서는 감정을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감정이 들어도 쉽게 표현하지 않으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감정을 표현하면 그건 그냥 기분일 뿐이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한다. 얼마나 감정을 억누르고 살면 우리나라에 ‘한(恨)’이라는 단어가 있겠는가.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너무나 참고 살아서 병이 생기고 그 병을 지칭하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이다. 화병(울화병)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화병의 영어표현도 그냥 화병(hwa-byun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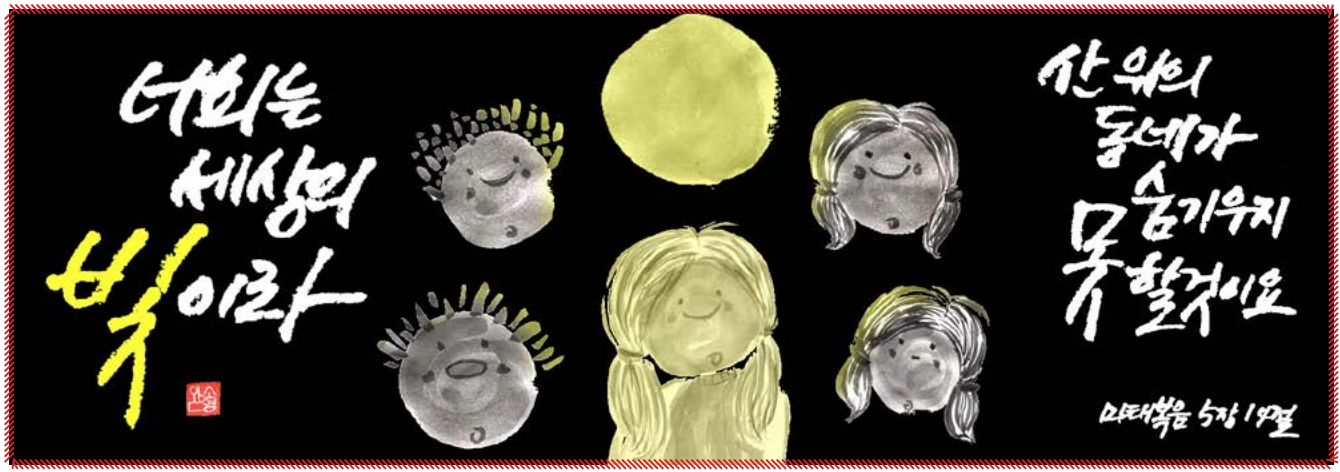
감정적인 이유를 잘 해결하기 위한 심리상담 같은 치료 방법들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며 감정을 억제하는 사회 분위기에 누구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러한 상태이다 보니 최근에는 스트레

스에 시달리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분노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지 않으니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이 되는 것이다.

조금 더 유연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에 잘 귀 기울이고 이해하며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감정적인 타인을 타산지석 삼아 자신의 감정도 어느 정도 절제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감정은 개개인에게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감정이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데려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좋지 않은 감정이 들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고 지금의 감정을 치유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생마처럼 날뛰는 감정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신앙논객::

::귀를 기울이세요::

## ‘새로고침’(Refresh)하세요!

예전에 유행했고 또 제가 좋아하던 세상 가요 중에 ‘꿈따리 사바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 번 질러봐...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랏 불러봐...’ 불현듯 이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는 그런 걱정과 고민, 염려들을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든 속에서 털어버리라는 조언이지요. 한 마디로 리프레쉬(Refresh), 즉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고치고 원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빠 돌아가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새로고침’의 필요성을 많이 간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건강을 해친 다거나, 사소한 일에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는 블레셋의 장관 골리앗을 물매로 때려잡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의 용맹과 지혜를 높이 사서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를 환영하는

여인들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랫말을 듣고는 불쾌함을 느끼고 그 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더니 평생에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대적이 되었다고 사무엘상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폐하여지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만약 사울 왕이 자기 자신 안에 있던 왕으로서의 부담과 전쟁에 대한 스트레스, 다윗에 대한 시기심 등을 여유를 가지고 잘 다스려 털어낼 수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충성된 신하요 아들의 절친이자 자기 사위였던 다윗에게 창끝을 겨누고 말았습니다.

리프레쉬(Refresh)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이번 설 연휴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칩거(蟄居)하는 가운데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몸도 마음도 신앙도 ‘새로고침’하세요!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 책은 마음의 양식

얼마 전 한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책 읽지 않는 대한민국, 노벨문학상에 짐작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미국 문학평론가 마이틸리 G.라오가 시사교양지 뉴욕커 온라인 판에 한국은 식자율(글을 아는 사람)이 98%에 달하고 출판사들은 매년 4만 권의 책을 내놓지만 정작 책 읽는 시간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적다고 비난했다.

노벨상은 GNP와 상관관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진국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13위라는 경제대국이지만 유독 노벨상에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노벨상을 받은 이력은 없다. 의학이나 과학분야는 노벨수상이 늦어지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아름다운 문학작품이 많은 대한민국이 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런데 이 칼럼을 통해 우리나라가 매년 노벨문학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책을 읽지 않는 국민들’ 때문이라니 안타까웠다. 실제로 우리나라 독서량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하위, 세

계에서는 중하위 수준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이 책을 멀리하게 된 이유에는 입시위주의 교육, 스마트폰 사용량과다, 여유가 없는 삶을 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독서를 해야 한다.

독서를 하면 지식이 쌓이고, 사고의 폭이 넓고 깊어지며 세상을 보는 혜안을 갖게 된다. 또, 독서는 수박 겉핥기식 단적인 면만 강조한 인터넷 기사보다 깊은 정보를 알게 해준다. 독서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치지 않는 독서팁을 드리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루에 몇 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반 책도 ‘하루에 몇 페이지’, ‘몇 월까지 책 몇 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읽기 시작해보자. 이렇게 ‘책 읽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에 조만간 나올 것이다. 세상의 지식이 담긴 책으로는 혼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책으로는 영의 삶을 찌우자.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내가 매일 기쁘게::

## 준비와 기회

지난 2015년은 매우 바쁜 한해였다. 늘 하는 일과 공부에 덧붙여 개인적인 대사를 앞둔 한해여서 더 바쁜 시간임에도 내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소논문 투고(제출)이었다. 다른 박사 수료생들은 1년에 1편 낼까 말까한 논문이지만, ‘그들은 그들이요, 나는 나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편의 논문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이 땅의 수많은 박사(수료생)들이 매년 쏟아내는 것들이 논문인지라 내 논문이 크게 빛을 발하거나 그 공을 인정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열심히 살았다’라는 스스로의 만족으로 충분한, 별 것 아닌 일이었다.

얼마 전,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2015년 박사수료생 우수논문 및 학술장려금 추천 신청’이라는 공지를 보았다. 신청기한이 하루 지난 상황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하였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추천서를 제출하였고, 1차와 2차 심사 결과,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정말이지 주님께 영광이다. 그동안 응원해주신 주변 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돌리며 문득 몇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나와 항상 동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지난 해, 결혼 준비와 사관학교 강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에도 예비 학자로서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던 내 노력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고 계셨던 것이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

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깨달음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던 목사님의 말씀이었다. 만약 내가 이런 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논문을 쓰지 않고, 실적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상을 바라고 논문을 투고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언덕을 오르는 거북이의 심정으로 묵묵히 걸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 일하는 시간들이 있었기에 갑작스레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준비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마지막 깨달음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다. 만약 내가 공지만 보고 포기했다면 상은 다른 곳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전화를 걸어 놓칠 뻔했던 기회를 잡았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실현된 것이다.

지금 나는 단거리 경주를 막 끝내고, 장거리 마라톤의 시작점에 서있다. 암담하고 막막한 이 시점에 ‘우수논문 선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응답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감사드린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Edu Section::

## 어머니의 갯년기

열심히 공부해야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부모님의 강력한 뜻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대저에서 할머니와 함께 유학생 생활을 했다. 그래서 엄마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시험이 없거나 바쁘지 않은 주말 뿐이었다. 주말에 가끔 만나는 엄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투정과 어리광뿐이었다. 엄마는 어린 딸아이를 잘 챙겨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온갖 투정과 어리광을 다 받아주셨던 것 같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이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온갖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위로 대신 단호한 말씀을 던졌다. “더 이상 너의 투정과 어리광을 못 받아 주겠다. 나도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제 너도 웬만큼 컸으니까, 엄마에게 투정 그만 부려라.” 라고 하셨다. 너무 충격적으로 변해버린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몇 달을 집에 가지 않았다. 그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는 꽤 오랫동안 서먹하게 지속되었다.

세월은 흘렀고 나에게도 우리 어머니와 같은 중년의 삶이 찾아왔다.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땀과 수일동안 뜬눈으로 지내야 하는 불면의 밤, 불안과 초조함은 수시로 찾아왔고 온 만신이 녹아내릴 듯한 고통과 우울증상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야 하는 시절이 온 것이다.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허전하기만 하고, 도대체 ‘나는 누군가?’ 하는 생각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다. 이런 힘든 시기를 겪는지 알 턱이 없는 가족들 간의 전투와 딸과의 모녀대전이 하루걸러 한 번씩 시작되었고, 급기야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사라져야겠다는 생각과 자살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이 찾아왔다. 혼자서는 절대 극복하기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된 것은 지극한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언제나 생글거리며 웃고 힘이 되는 어머니일거라는 생각은 그만해야 한다. 여자가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찾아오는 생리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기 바란다.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살아온 어머니의 인생을 인정하고 어머니가 가족들의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힘쓰자.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참된 깨달음::

## 생명의 문이 되는 “입”

사람의 입은 몸을 지탱하게 하는 영양의 보급로이면서 호흡기능을 겸하는 신체 중 가장 중요한 부위로서 소화기관의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내 몸에 유익한 음식과 보약도 들어가지만 내 몸을 해치는 음식이나 독약도 들어갈 수 있어 입은 생명의 문인 동시에 지옥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입은 책임의 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인데, 그래서 생겨난 말이 ‘심사일언(深思一言)’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이지요.

“말이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자와, 말에 담기는 내용, 그리고 말이 향하는 대상이다. 말의 목적은 마지막 것과 관련되어 있다. 즉 말이 향하는 대상, 곧 듣는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말은 듣는 사람을 상처 입히고, 상스러운 말은 듣는 사람을 상대로 모욕하는 것이며, 거짓된 말은 듣는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 되고, 헛된 말은 듣는 사람을 허탈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그의 친구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 이야기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리고 “듣는 나에게 유익한 얘기입니까?” 라며 두 가지를 묻더니 “그렇다면 말해보시오.” 하자 그 사람은 “두 가지 다 아닙니다.” 라며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부정적인 말을 전해들은 후엔 꼭 “나 귀먹었다.” 하시며 부정의 말을 씻어 내버린다고 합니다.

아껴서 좋은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어찌면 돈보다 더 아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아닐까요?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잠 15:4).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 Good News

노인 심리학자 ‘브롬리’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현대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늙어가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한 동안 웰빙(Well-being) 바람이 불다가 최근에는 아름답게 늙어가는 웰에이징(Well-aging)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생각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죽은 뒤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

음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의 마음에는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세 가지 있고, 아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누구나 죽고, 혼자 죽고,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쁜 일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은 죽은 뒤의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꺼지지도 않는 영벌의 불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